



## 한국표준협회, '201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개최

유한킴벌리,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과 '지속가능성보고서상' 공동 수상



▲ 2011 지속가능성대회 수상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유한킴벌리,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과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공을 누렸다. 이는 한국표준협회가 '201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국내 128개 기업과 65개 보고서를 조사, 평가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협력과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책임에 다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1일 발간된 ISO 26000(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은 더 이상 사회적책임이 특정 단체나 NGO7 관에계단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ISO 26000 국내 간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는 10월 6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201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성지수 1위기업'과 '지속가능성보고서

상'을 시상했다. 사회책임임을 실천하는 국내 128개 기업과 65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를 시상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DGB금융지주, 삼성서울병원, GS칼텍스, 홈플러스 등 33개사가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GS건설, KT,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사가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했다. 특히 유한킴벌리,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수 1위 기업과 보고서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에 지수 1위 기업 평가모델로 사용된 KSI(Korean Sustainability Index)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impact)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는지를 함께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전문가,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 수준을 평가한 기존 지수들과는 달리 외부 전문가는 물론이고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설문 참여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전체의 KSI 평균점수는 56.01점으로 60점을 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 이는 아직 국내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 수준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특히 일반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한 KSI 점수는 55.86점으로 지난해보다는 높았지만 일반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아직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특히 소비자는 서비스 불만분쟁 해결과 노력과 제품보건 및 안전 요구를, 투자자는 기술발전과 경영의 투명성 요구를, 협력업체는 고용창출 기회 제공을, 미디어는 소비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역사회

주인은 환경오염 방지를 중요한 사회적책임 활동 요소로 꼽았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권위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는 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평가하는 KRCA(Korean Readers' Choice Award)모형을 개발하고 2008년부터 매년 우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도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간된 국내 65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시상한 것이다.

〈표1〉 지속가능성보고서 수상기업 리스트

최초 발간	GS건설
제조	유한킴벌리
서비스	KT, 현대해상화재보험
1위 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표2〉 지속가능성지수(KSI) 업종별 1위 기업 리스트

제조업(15개)		서비스업(15개)		공공부문(1개)	
업종	1위 기업	업종	1위 기업	업종	1위 기업
건설	삼성물산	박화점	롯데박화점	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계/부품	LG디스플레이	서점	교보문고	철도/지하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생활가전	LG전자	생명보험	교보생명	SOC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생활용품	유한킴벌리	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석유화학	LG화학	신용카드	신한카드		
식품	풀무원	오픈마켓	11번가		
유기공	서울우유	은행	DGB금융지주		
의류	제일모직	인터넷	SK브로드밴드		
자동차	기아자동차	종합병원	삼성서울병원		
정유	GS칼텍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조선	현대중공업	통신	SK텔레콤		
철강	포스코	포털사이트	NHN(네이버)		
타이어	한국타이어	할인점	홈플러스		
화장품	LG생활건강	항공	대한항공		
환경가전	웅진코웨이	홈쇼핑	CJ오쇼핑		



※ ISO 26000 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측정모델'

## 기술표준원 인사 동정

이승연 서기관 자원총괄과장

장혁조 연구관 적합성정책과

이유진 전문위원 신산업표준과

어용석 주무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에이스침대 등 한국사용품질지수 6년 연속 1위 기업으로 한국표준협회, 9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7회 KS-QEI 인증 수여식과 인증서 전달



▲ KS-QEI 1위 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표준협회(KSA)는 9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1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1위 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하였다. KS-QEI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구회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지표로 품질 우수성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이다. 이번 조사에선 주택용 보통침대의 에이스침대, 선풍기의 신일산업, 자동차용 배터리의 웰코,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흥성브레이크, 구두제화의 금강 등이 6회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엄지부동액의 동아특수화학, 가정용 가스온수보일러의 경동나비엔이 5회 선정되었으며, 포틀랜드시멘트의 한일시멘트가 4회, 자동차용 타이어의 한국타이어, 아파트의 포스코건설, 세탁용 합성세제의 피죤이 3회, 수성도료와 PVC(비닐계)바닥재의 케이씨씨, 레디퀵트 콘크리트

(표) 2011년 KS-QEI 주요 1위 기업

구분	1위 상품 및 서비스	1위 기업
KS 제품	사무용기구	(주)코아스텔
	수성도료	(주)KCC
	도자기질 타일	에이에스동서(주)
	부동액	동아특수화학(주)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주)흥성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주)웰코
	레디퀵트 콘크리트	(주)삼표
	형광램프	(주)오스람코리아
	포틀랜드시멘트	한일시멘트

의 삼표, 이온수기,의 바이온텍, 준중형 및 중형승용차, SUV의 현대 자동차가 2회 선정돼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이 밖에 콘드미니엄의 리솜리조트, 대형 탕배의 대한통운, 차량 수리 및 견인서비스의 한성자동차, 카렌탈 서비스의 A센터카, 전기냉장고의 LG전자, B+V의 SK 브로드밴드 등 총 73개 상품과 서비스가 품목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KS-QEI는 성능과 적합성, 신로성, 서비스, 이미지 등 5개 부문을 재구매 의향, 고객만족, 타인 추천의향 등의 평가요소를 고려한 고객 충성도 차원과 함께 철저히 검증 조사함으로써 국내 대표적 사용자 품질만족도 평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KS 인증제품 33개, 일반 제품 및 서비스 40개 등 총 73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274개 호사의 제품 또는 상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만5,000여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올해는 평균 703.48점으로 지난해보다 1.12점이 상승했고, KS제품은 711.36점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4.21점의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신뢰성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창룡 KSA 회장은 "소비자 KS-QEI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대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과 저연령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과 마케팅활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분	1위 상품 및 서비스	1위 기업
KS 제품	선풍기	신일산업(주)
	에어컨디셔너	LG전자(주)
	전기 냉장고	LG전자(주)
	김치냉장고	위니아도도
	디지털 도오록	서울통신기술
	주택용 보통침대	에이스침대
	가정용 주방용구	(주)보루네오기구
	구두제화	금강(주)
	세탁용 합성세제	(주)피죤생활용품

## 세계적 수준의 시험인증서비스 위한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현판식 관련 분야 공동연구 등으로 세계 10대 시험인증산업국가 비전,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소통의 장 마련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현판식이 2011년 10월 11일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와 유관기관과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협회 이사와 회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2011년 8월 25일 국제 수준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기업적인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하여 국내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들어갔다.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앞으로 '세계 10대 시험인증산업국가로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내 시험인증산업계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분야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공동 연구하고 시험인증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나 경험 등을 공유하도록 유도하여 시험인증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며, 관련 산업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인증산업이 미래지향적이고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시험인증산업의 육성과 정책입안 수행에 참여하여 신성장동력시장 창출을 고려한 계속, 시험, 분석장비의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중·EU 등의 시장확장형 및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크 등 시험인증지원협의 해외 공동진출을 협회 주관으로 추진



▲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현판식에 참석한 관계부처 참가자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할 계획이며, 정보은행을 구축 운영하여 회원사들에게 국내 시험인증시장의 현황 조사와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등의 고가장비 위탁·임대사업 등을 수행하여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교정·검사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시험인증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43개 법정외무와 69개 법정임의, 70여 개의 민간시험인증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3개 인정기구인 KOLAS, KAS, KAB 등을 단일시험인증체계로 구축하는 등 정부정책 수행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분석정확도 경진대회 1위 입상 국제공인시험기관 평가방식의 제4회 해양경찰청장배대회, KCL의 신뢰도 다시 한 번 입증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4회 해양경찰청장배 분석정확도 경진대회'에서 특수항목 폴리염화비페닐(PCBs) 부문 1위로 입상하였다.

이번 분석정확도 경진대회는 해양경찰연구소가 환경시료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유도하고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평가는 국제공인시험기관 평가방식으로 추진하고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 참가기관별로 분석수준을 알 수 있다.

순위 판정은 불확도를 산출한 기관으로서 100점 환산점수의 90점 이상 결과를 도출한 기관에 대해 분야별 1, 2, 3등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KCL의 이번 대회 1위 입상은 분석정확도에 대한



▲ KCL이 '제4회 해양경찰청장배 분석정확도 경진대회'에서 특수항목 폴리염화비페닐(PCBs) 부문 1위로 입상해 상을 받고 있다.

KCL의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이다.



##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독일 전기·전자 인증기관 VDE와 MOU

### 전기·전자와 의료기기 분야 등 협력 강화, 화학산업과 생명공학협회인 DECHEMA와도 MOU 체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독일의 대표적인 전기·전자 제품 시험·인증기관인 독일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협회(VDE)가 10월 5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기성 KTR 원장과 윌프레드 예거(Wilfried Jäger) VDE 대표는 이날 독일 오펜바흐에 위치한 VDE연구소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전기·전자·정보통신·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VDE는 전기·전자 및 각종 소비용품에 대한 시험과 인증 등을 담당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현재 독일과 EU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과 VDE는 정보교환과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의 전기공학, 전자 및 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향후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EU 수출기업들은 KTR을 통해 해당

국가 인증과 시험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KTR은 같은 날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DECHEMA 본사에서 독일 화학산업 및 생명공학협회(DECHEMA)와도 MOU를 체결했다.

DECHEMA는 5,8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공업과 생명공학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학산업 전시회인 ACH-EMA의 운영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KTR의 아시아 환경규제 서비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정보공유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조기성 KTR 원장과 윌프레드 예거 VDE 대표

##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제 동향 파악 위한 EMP 국제 워크숍

### 서울 국제총회 기간 중 IEC/SC 77C 의장 등 EMP 전문가 초청, EMP 관련 장비 전시회도 개최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전자파연구소는 EMP 관련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진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자기밀스(EMP) 국제워크숍을 '0월 2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77C(고출력 전자파 분야) 서울 국제총회 기간 중 Dr. Radasky IEC/SC 77C 의장과 Dr. Hoed 간사 등 EMP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였으며, 약 160여 명의 EMP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는 EMC 솔루션과 (주)이레테크, 로데슈바르츠의 EMP 관련 장비들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조기성 KTR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 개최로 EM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학·연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밝혔다.

KTR은 EMP 방호 시설/필터시험 및 평가설비를 갖춘 국가 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국가 주요 기간시설의 EMP 방호능력 평가와 국내 EMP 필터시험과 개발 연구지원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전자기밀스(EMP) 국제 워크숍 장면

## FIT시험연구원, 오창산업환경시험센터 준공식 거행

환경과 바이오, 부품소재산업 분야 등으로 업무 확대 통해 종합시험검사기관으로 도약 위한 투자 결실

**fi** FIT시험연구원은 산업환경본부의 오창산업환경시험센터 이전을 기념해 10월 21일 임직원과 정관계 인사들을 초빙하여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노문욱 FIT시험연구원 원장은 "산업환경시험센터는 기존의 섬유중심 시험검사 서비스에서 환경 및 바이오,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 분야로의 업무 확대를 통하여 종합시험검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의 산물이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준공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환경바이오, 부품소재 분야를 미래 핵심사업의 전략개념으로 간주하여 전문인력 및 정밀기기와 설비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오창산업환경시험센터의 준공 또한 이러한 전략사업의 성과이다.

오창산업환경시험센터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국내외 국제 제 대응 안전요건, 위험요소 관리, 토목, 자동차·건축 내외장재, 바닥재, 도로 안전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를 제공



▲ 2010년 11월 말에 착공해 지난 10월 완공된 오창산업환경시험센터 준공식.

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FTA 발효에 따른 해외시험기관과의 시험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꾀하며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고 있어 글로벌 종합시험기관으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번 이전을 통해 오창으로 대규모 인원이 유입되고 관련 기관과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도약과 단합 위한 추계체육대회

10월 14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임직원 320여 명 참석, 화합을 위한 재충전의 한마당

**KTC** KTC는 10월 14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추계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KTC 임직원 약 3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심윤수 KTC 원장은 개회사에서 "비가 와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바쁜 일상을 놓고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을 풀고 평상시 킬라 달라 서로 이야기 할 시간도 없었을 다른 팀 직원들과 경기도 즐기면서 건강하게 심신을 다지자"고 말했다.

이번 체육대회의 종목은 축구와, 피구, 줄다리기, 2인3각 달리기, 이어달리기의 5종목으로 축구 예선전부터 시작되었다. 직원들은 1조부터 4조까지 색깔을 달리한 명찰을 달고 관중석에 앉아서 풍선을 불고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등 모처럼 긴장을 풀고 함께 어울리며 화합을 다졌다.



▲ 10월 14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KTC 추계체육대회 장면.

이날의 체육대회는 KTC직원들 모두가 승패를 떠나 함께 땀을 흘리며 도약을 향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자리로 손색이 없었다.